

■ 문헌 연구

## 새로 발굴한 과재(過齋) 김정묵(金正默)의 <매산별곡(梅山別曲)> 연구

구사회\*

〈차례〉

1. 머리말
2. 김정묵의 생애와 문학
3. <매산별곡>의 원문과 주석
4. <매산별곡>의 작품 검토
5. 맺음말

〈국문초록〉

<매산별곡(梅山別曲)>은 이번에 처음으로 발굴된 가사 작품으로 18세기 후반에 과재(過齋) 김정묵(金正默, 1739~1799)이 지은 것이다. 그는 노론 낙론계 학자로서 도통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시문은 상대적으로 얼마 남기지 않았다.

문집은 『과재유고(過齋遺稿)』인데 시는 143수에 지나지 않는다. 가사 작품인 <매산별곡>과 관련하여 주목할 <차수미음(次首尾吟)>119수가 있다. <차수미음(次首尾吟)>은 송나라 邵康節(1011~1077)의 <首尾吟>을 본떠 지은 것으로 후대에 首尾吟體라는 양식이 되었다. <차수미음(次首尾吟)>은 본래 소강절에 근원하고 있지만 그가 창작하게 된 배경에는 우암 송시열의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과재의 <차수미음(次首尾吟)>은 우암의 그것처럼 도학이나 심성과 같은 유학적 물음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것들은 호락논쟁의 주제로 떠올랐던 심성론과 관련된 제재들인데, 그의 <매산별곡>에도 깊게 투영되고 있다.

\* 선문대학교

<매산별곡>은 조선후기 사대부가사의 하나인 강호가사이다. 가사 길이가 2음보 1구의 236구로 된 중형가사이고 전통적인 가사 형식을 따르는 정격가사에 해당한다. 작품 구성은 대부분의 강호가사가 그렇듯이, ‘서사’-‘본사’-‘결사’로 이뤄지고 있다. 창작시기는 그가 충청도 회인군 매산리(현재 충북 보은군 회남면)에 살았던 1780년 전후로 짐작된다.

<매산별곡>은 매산(梅山)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작자의 의식과 정신 세계를 읊고 있는 강호가사이다. 그런데 <매산별곡>은 단순한 강호가사가 아니라, 심성과 관련된 노론 낙론계의 도학적 관점이 작품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어 : 과재 김정묵, 매산별곡, 과재유고, 강호가사, 호락논쟁, 심성, 首尾吟

## 1. 머리말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유학을 자신들의 이념으로 삼아 학문과 인격을 연마하다가 때가 되면 출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학문에 힘쓰며 심성 수양을 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들이 지은 가사 작품은 유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양반 계층이던 이들 사대부들은 가사 작품에 자신들의 이념 세계를 담거나 자신이 처한 현실 생활을 반영시켰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양반 계층도 세족에서 향반, 더 나아가 경제력을 상실하고 평민이나 다름없는 몰락양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으로 분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18세기 사대부들은 강호 한정이나 유학적 이념을 읊기도 하고, 향촌에 살고 있던 양반은 전원이나 농촌의 일상을 담기도 한다. 권력에서 밀려난 사대부들은 연군의식을 읊으며 권력에의 회귀를 읊기도 하

고 평민이나 다름없는 몰락 양반은 현실의 괴로움과 불만을 가사에 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유학을 이념으로 무장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강호에서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는 사대부들도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과제(過齋) 김정묵(金正默, 1739~1799)은 바로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과제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후손으로 기호학파의 학통을 이었던 유학자였다. 그는 호서지역에서 태어나 과거를 포기하고 일생을 강호에서 처사로 보냈다. 자신이 태어나기 직전인 18세기 초엽에 호락논쟁(湖洛論爭)이 있었는데, 그는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심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며 학자로 일생을 마쳤다. 그는 노론 낙론계 학자로서 도통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적으로 시문은 얼마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필자는 김정묵이 회인면(현 보은군) 매산리에 살면서 지은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가사 작품인 <매산별곡(梅山別曲)>을 접하게 되었다. 도학 연구에 매진하며 문학 활동도 삼가던 그가 뜻밖에 가사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를 학계에 공개하고자 한다.

근래에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에서 조선각본 『삼국지연의』 7권을 입수하였다.<sup>1)</sup> 그런데 <매산별곡>은 그 이면에 필사되어 있었다. 고전 문학 필사 자료는 서책의 이면지에 종종 기록되어 있다.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서책의 이면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기록해놓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한시와 함께 시조나 가사, 또는 고소설이 필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매산별곡>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

이 논문은 새로운 가사 자료에 대한 발굴 보고이다. 그러니만큼 먼저 작자인 김정묵이 어떤 인물인 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어서 <매산별곡>의 가사 원문을 소개하고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 박재연, 「조선각본 《新刊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에 대하여」, 『중국어문학지』 27집, 2008, 171~211면.

## 2. 김정묵의 생애와 문학

김정묵(金正默, 1739~1799)은 조선 후기 영정조 시기의 학자이자 문인이다. 그의 문인이었던 송치규(宋稹圭, 1759~1838)가 찬술한 <행장(行狀)>과 송병선(宋秉璿, 1836 ~ 1905)이 찬한 <묘지명>, 그리고 광산 김씨의 족보를 통해 그의 생애를 살펴본다.

김정묵의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기호학파의 적손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후손이며, 서포 김만중의 아우였던 김만기(金萬基, 1632~1692)의 고손(高孫)이다. 그의 집안은 전형적인 노론 집안에 해당한다. 그는 영조15년(1739) 5월에 충청도 서산에서 아버지 김위재(金偉材)와 어머니 파평 윤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8세에 재당숙인 김기재(金驥材)에게 입양되었다. 그의 초명은 두묵(斗默), 자(字)는 이운(而運), 호는 과재(過齋)였다. 어려서 총명했던 그는 『삼국지』를 읽고 문장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노론 낙론계의 예학에 밝은 학자였는데, 일찍이 조부였던 김운택(金雲澤)이 신임사회에 연루되어 벼슬에서 물러난 것을 보고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는 불혹의 나이인 정조2년(1778)에 충남 회인군(懷仁郡) 매산리(梅山里)로 이주하였다.<sup>2)</sup> <매산별곡>은 이곳과 관계가 있다. 정조4년(1780) 6월에 관찰사 이병정(李秉鼎)의 추천으로 돈녕부참봉(敦寧府 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고, 정조7년(1783)에 청주 사산(砂山)으로 이주하였다. 이듬해에 사헌부 지평과 서연관, 경연관에 임명되었으나 족친인 김하재(金夏材)의 역변(逆變)으로 면직을 청하였고, 이어서 초야에 은거하는 선비를 찾아 인재를 천거하는 유일(遺逸)에서도 삭제되었다. 과재는 이후로 교유를 끊고 학문과 후진 양성에만 힘을 쏟다가 정조13년(1789)에 51

2) 매산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충북 보은군 회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80년 대청댐 담수호 사업으로 수몰되었다.

세의 나이로 충남 회덕군(懷德郡) 정민리(貞民里)로 돌아왔다. 이 시기에 과재는 호락논쟁에서 호론의 주역이었던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남당집차변(南塘集筭辨)>을 완성하였는데, 남당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정조 23년(1799) 1월에 61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의 유문은 정리되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1928년에야 6대손 김용계(金容契)에 의해 『과재유고(過齋遺稿)』가 연활자본으로 발간되었다.

『과재유고』는 모두 11권 5책인데, 시작품은 12제 143수에 지나지 않고 경학(經學)과 관련된 <잡저(雜著)>가 대부분이다. <잡저>를 보면, 그는 노론 낙론계의 관점에서 남당의 견해를 비판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대부분 상당한 분량의 시작품을 남겼다. 그런데 과재의 한시가 적은 것은 주로 정통 유학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의 성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한시가 보여 주는 시적 경지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과재유고(過齋遺稿)』에서 처음 나오는 <치(雉)>와 마지막에 나오는 <차수미음(次首尾吟)>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雉> 疏趾且耿介 角角鳴逐隊 火德成五彩 臨水却自愛 雖云形如鷄 難畜於樊內 春日山梁上 燁燁多奇態 寄語慎飲啄 毋令致後悔 <sup>3)</sup>	평 성긴 발로 곳곳이 서서, 까아까악 소리내며 대오를 쫓는다. 화덕으로 오색 무늬를 이루며, 물가에 가선 스스로를 다듬는다. 모양이 닭과 같다고 이르지만, 울 안에서 기르기가 어렵다. 봄날 산등성이 위에서, 남다른 자태를 한껏 뽐낸다. 부디 마시고 쪼기를 신중히 하여,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말거라.
---	---

3) 『過齋遺稿』卷1, <雉>.

이는 <꿩(雉)>이라는 10구의 5언고시이다. 시에서 화자는 꿩의 성품이나 모습, 그리고 습성 등과 같은 여러 특징을 묘사하면서 경계의 언사로 마무리하고 있다. 제1구에서 ‘소지(疏趾)’는 꿩이 살지면 두 발을 벌리고 서있기 때문이고, ‘경개(耿介)’는 꿩의 성질이 깨끗하고 곧아서 직선으로 날아오르기 때문이다. 제3~4구에서 꿩은 오행의 화덕(火德)으로 오색의 조화를 이루고 상극인 물에서도 자애(自愛)할 줄 안다고 칭찬하고 있다. 제5~6구에서 사람들이 꿩을 기르기 어렵다는 것은 그것을 새장에 가두면 일직선으로 날아오르다 부딪혀 죽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꿩이 죽더라도 직선으로 날아오르는 것은 뜻을 잃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선비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제7~8구에서는 꿩의 봄날 광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자의 말씀을 통해 꿩의 품성을 비유한 것이다. 일찍이 공자는 꿩이 사람의 기색을 살피고 날아올랐다가 다시 나무에 앉는 광경을 보고 꿩도 시중(時中)에 맞게 행동한다고 칭송했기 때문이다.<sup>4)</sup> 제9~10구에서는 마지막으로 화자가 꿩더러 조심하라는 경계의 말을 하고 있다. 이 시는 꿩의 좋은 품성을 드러내면서 한편으로 조심스럽게 경계의 목소리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꿩은 우의로 빌려온 존재이고 실제로는 작자 자신이었을 것이다. 우화소설 <장끼전>에서의 지혜롭지 못한 장끼의 인물형과는 좋은 비교가 된다.

다음으로 <차수미음(次首尾吟)>이라는 시를 살펴보자. 과재의 한시는 모두 143수에 지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차수미음(次首尾吟)>만 119수이다. 현재 전하는 그의 시 중에서 8할 이상을 차지하는 분량이다. 이 시는 과재 한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過翁非是愛吟詩  
詩是過翁接友時  
勢利功名皆僞耳

과옹이 시 읊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시 읊기는 과옹이 벗을 접할 때라네.  
권세와 공명은 모두 거짓일 뿐,

4) 『論語』「鄉黨」편, “色斯學矣, 翔而後集. 曰山梁雌雉, 時哉時哉. 子路共之, 三嗅而作.”

謙恭孝悌各修之 脅肩唯喏元非義 補道切僣儘着題 夫子獨稱平仲意 過翁非是愛吟詩 <sup>5)</sup>	겸공과 효제를 모두가 닦아야 하네. 굽실대며 ‘예, 예’하는 것은 원래 義가 아니고, 간절하고 독실하게 도를 돕는 것이 원칙에 알맞은 것 이라네. 공자께서 오직 晏平仲(晏嬰)의 생각을 말씀하셨나니, 과옹은 시 읊기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네.
過翁非是愛吟詩 詩是過翁觀物時 萬億百千根太一 往來飛躍出精微 月本賴日日何賴 聖即希天天孰希 語到源頭意不盡 過翁非是愛吟詩 <sup>6)</sup>	과옹이 시 읊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시 읊기는 과옹이 사물을 관찰할 때라네. 수많은 사물은 태일(太一)에 근본을 두나니, 가고오고 날고뛰는 것이 정미함에서 나온다네. 달은 본디 해를 의지하는데 해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성인은 하늘을 바라는데 하늘은 무엇을 바라는가. 말씀이 근원에 이르면 의미가 무궁하니, 과옹은 시 읊기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네.

<차수미음(次首尾吟)> 119수에서 첫째와 다섯째 작품을 예로 든다. <차수미음(次首尾吟)> 은 한시사의 양식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과재의 <차수미음(次首尾吟)>은 송나라 邵康節(1011~1077)의 <首尾吟>에 기원을 두고 있다. 소강절이 <首尾吟>의 첫 구와 끝 구에 ‘堯夫非詩愛吟詩’라는 같은 구절을 사용하고, 2구는 ‘詩是堯夫○○時’로 고정시키고 두 글자만 교체하여 134수의 연작시를 창출해냈다.<sup>7)</sup> 그런데 후대인들이 소강절의 <首尾吟> 형식에 맞춰 본떠 짓게 되자 그것은 하나의 문예 양식이 되었다. 尤庵 宋時烈도 소강절의 그것에 차운하여 ‘尤翁非詩愛吟詩’와 ‘詩是尤翁○○時’를 주로 사용하여 <次康節首尾吟韻> 134수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과제 김정목은 ‘過翁非是愛吟詩’와 ‘詩是過翁○○時’를 사용하여 <차수미음(次首尾吟)> 119수를 짓고 있다.

5) 『過齋遺稿』卷1, <次首尾吟>제1수.

6) 위의 책, <次首尾吟>제5수.

7) ‘首尾吟體’의 전반적인 한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으로 미룬다.

정민, 「尤庵先生 <首9尾吟> 134수 管窺」, 『한국사상과 문화』42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35-62면.

그의 <차수미음(次首尾吟)>은 소강절에 근원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창작하게 된 배경에는 尤庵의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과재는 김장생의 직계 후손으로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평생을 노론 낙론계의 학자로 활동하다가 죽었다. 그는 도학이 율곡 이이에서 사계 김장생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우암 송시열로 계승되었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sup>8)</sup> 그런데 남당 한원진이 도통에서 사계 김장생을 누락시키자 일생을 두고 논박하였다.

송시열의 <次康節首尾吟韻>이 주로 학문과 도학적 내용 등을 제재로 하고 있는 것처럼, 과재의 <차수미음(次首尾吟)>도 도학이나 심성과 같은 유학적 물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위의‘接友’이나 ‘觀物’처럼 學道·獨處·自警·責善·格致·論性·自勉·著述 등과 같은 제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부터 도학적 규범에 이르는 폭넓은 범위에 이르는 대상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위의 ‘接友’시에서는 벗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벗을 접하면서 겸공과 효제를 닦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아침하거나 말에 맞춰주는 것이 義가 아니고 간절하고 진정으로 대해야 한다며 공자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다. ‘觀物’시에서는 사물을 통해 그것의 근본을 살피겠다는 내용이다. 작자는 그것을 태일(太一)로 귀결시키고 정미함을 살피고 있다. 그의 이와 같은 태도는 도학의 근원을 탐색하는 것인데, 당시 호락논쟁도‘性’과 같은 근원적인 물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재의 사물의 근본에 대한 물음과 그것에서 비롯된 도학적 규범은 그의 저작물에 나타난 주된 주제였고, 그것은 <수미음(次首尾吟)>를 비롯한 그의 한시 작품에 담겨 있다. 그런데 그의 저작물과 한시에서 보여준 ‘心性’의 문제가 이번에 발굴된 <매산별곡>에 투영되고 있다.

8) 윤사순은 過齋 金正默의 사승 관계가 ‘栗谷 李珣 → 四季 金長生 → 尤庵 宋時烈 → 丈巖 鄭滸 → 迷庵 金偉材 → 過齋 金正默 → 剛齋 宋穉圭 → 淵齋 宋秉璿’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윤사순, 「기호 유학의 형성과 전개」, 『기호학과의 철학사상』, 예문서원, 1995, 16-18면.)



### 3. <매산별곡>의 원문과 주석

엇진지 내 성정 산슈의 벽이 ；러<sup>9)</sup>  
 빅스를 다 저치고 스방의 오유흐니  
 명산대천의 족적이 거의노다<sup>10)</sup>  
 늣<sup>11)</sup>여<sup>11)</sup> 병이 깃허 장유의 힘이 업셔  
 고역의<sup>12)</sup> 문을 닷고 시셔를 벗을 삼아  
 인지의 참 형체를 심상의<sup>13)</sup> 점검흐니  
 하늘쳐로 눗흔 인산 짜쳐로<sup>14)</sup> 너른 지슈<sup>15)</sup>  
 아 ；흐 죠흔 괴상 니구<sup>16)</sup>의 일막이오  
 양 ；이 몹은 형세 무이의 접흐이여<sup>17)</sup>  
 강절의 동설춘하 렴계의 광풍제월  
 식 ；이 ㅁ쟈 잇고 곳 ；이 죠하시니<sup>18)</sup>  
 향너 외경의 허락을 우이 녀여<sup>19)</sup>  
 권중 금고의<sup>20)</sup> 세월을 보내더니  
 어와 내 일이야 칙 덩고 도라혀니<sup>21)</sup>

9) 천석고황(泉石膏肓)의 병이 생겨나서. ‘일다’는 [起], 중세국어는 ‘닐다’.

10) ‘거의로다’에서 ‘르’을 ‘니’으로 표기한 것. 안 다닌 곳이 없다는 뜻.

11) 늣게이. ‘늣<sup>11)</sup>여’는 ‘늣어’의 뜻. ‘늣<sup>11)</sup>여’의 ‘ㄱ’을 앞 음절에도 적어 준 것.

12) 古城

13) 尋常+ 의(부사격조사), 늘.

14) ‘쳐로’는 ‘처림’

15) ‘仁者樂山, 知者樂水’

16) ‘니구(尼丘)’, 공자를 말함.

17) ‘接하여’의 뜻. 무이와 다를 바 없다는 뜻.

18) 중세국어 ‘똥다’는 [好], ‘죵다’는 [淨]. 그러나 근대국어(17세기) 이후 ‘똥다’가 구개음화에 따라 ‘죵다’로 변화. ‘죵하시니’=죵(다+아(연결어미))+시+니. ‘시-’는 ‘잇-, 이시-’의 이형태임. ‘죵아 있으니’로 번역. 사실은 ‘죵흐니’로 표기하는 것이 어법에 맞지만, 운율 때문에 이렇게 썼을 것.

19) 우습게 여겨. 웃-(笑)+이(부사형 어미)+너기-(做)+어

20) ‘卷中禁錮’

본심의 어질기야 도척인들 업돏더냐  
 본연만 미더 두고 기척을<sup>22)</sup> 아니하면  
 놓던 뵈 나자지고 깎던 물 야타지예<sup>23)</sup>  
 구름이야<sup>24)</sup> 안개야 어즈러이 끼인<sup>25)</sup> 중의  
 가식덤풀<sup>26)</sup> 췌쓸희예 진면목이 아조 업서  
 이단잡뉴와 이적금슈들이  
 방즈이 횡횡하여 풍경을 더러이니  
 어와 가외로다 이러하면 엇지허리  
 네부터 현인군즈 살디를 갈희 말<sup>27)</sup>  
 산명슈려하면 양심<sup>28)</sup>의 유조허기  
 무극옹<sup>29)</sup> 운대진일<sup>30)</sup> 별경을 어더 내어  
 갓슨 췌고 노력 불너 천기<sup>31)</sup>를 즐겨스니  
 내 췌 일을<sup>32)</sup> 비화 정계를<sup>33)</sup> 츠즈리라  
 미산<sup>34)</sup> 지척지의 강물이 돌너시니<sup>35)</sup>

21) ‘도라허니’는 ‘돌이키니’. 중세국어라면, ‘돌+으(사돈접미사)+혀(강세접미사?)+니’이므로 ‘도르허니’로 적힐 것인데, 16세기 이후 ‘·’의 소멸에 따라 ‘도라-’로 적힘.

22) 改斥

23) ‘야타지예’는 ‘야타지어’ 또는 ‘야타지너(이 가능성은 희박)’의 오기.

24) ‘이야’는 접속조사, 중세국어에서는 ‘여’로 나타남. ‘구름이며 안개며’로 번역.

25) ‘끼인’은 ‘자욱하게 낀’

26) ‘덤풀’은 ‘덤불’이 맞을 것. ‘췌’는 ‘띠’ ‘췌희’는 ‘뿌리’.

27) 살 곳을 가리니. ‘갈희다’는 ‘분별하다, 선택하다’. ‘-니말이’는 정체가 잘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니’ 정도로 읊기면 될 것.

28) 養心

29) ‘무극옹(無極翁)’은 주돈이(周敦頤)를 지칭하는 말. 주돈이가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고 하여 이르는 말.

30) ‘운대진일(雲臺眞逸)’은 주희를 지칭하는 말. 주희가 태주(台州)의 숭도관(崇道觀)을 주관하다가 뒤에 화주(華州)의 운대관(雲臺觀)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

31) 天機

32) ‘이를’을 ‘일을’로 적은 것.

33) 淨界

34) 梅山

뇨쵸청절<sup>36)</sup>혀 세외에 별지로다  
일간 모옥을 강안의 부쳐 두어  
산조강구들과 밍세를 구지 혀<sup>37)</sup>  
식비를 곱히 닷고 석상의 누어시니  
님중<sup>38)</sup> □□□□은 눈 압희 버러 잇고  
인간풍우는 씬속의도 머러세라<sup>39)</sup>  
송하의 학이 울고 운중의 기 즈즈니<sup>40)</sup>  
심산의 약키는 벗 암반으로 도라오내  
석정의 다린 차를 너도 혼 잔 나도 혼 잔  
말업시 상티혀 뉴슈만 구버보니  
왕 : 담혀야 속 : 드리 몯앗고야  
뒤 뵈히 취를 키여<sup>41)</sup> 살문 콩 셋거 먹고  
경전을 노릭혀 님하의 훗거르니<sup>42)</sup>  
증즈도곤 가음열고 원현도곤 녀 : 혀다<sup>43)</sup>  
갓부거든 안자 쉬고 갈혀거든<sup>44)</sup> 물을 마셔  
내 싱이 유여혀니 늣을 어이 부워혀리<sup>45)</sup>

35) 둘러 있으니. 두르+ 어+ 시+ 니. ‘시-’는 ‘잇-, 이시-’의 이형태.

36) 窈窕淸絶

37) 맹세를 굳게 맺어

38) 林中

39) 떨구나. 떨-+ 어+ 시-+ 에라. ‘-시-’는 ‘잇, 이시-’의 이형태. ‘에라’는 감탄. 직역 하면 ‘떨어 있구나’인데, ‘떨구나’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40) ‘솔개’를 ‘소리기’라고 불렀음.

41) ‘취나물을 캐어’

42) 散步 또는 橫步의 뜻인 듯. ‘흠다(散)’의 어간 ‘흠-’에 ‘걷다’의 활용형 ‘거르니(일반적으로는 ‘거르니’)가 결합함. 흠- → 혼-(8종성표기법) → 훗-(7종성표기법, 근대국어 이후의 특징)

43) 증자보다 부유하고 원현보다 넉넉하다.

44) 숨가쁘면 앉아 쉬고 목마르면.

45) 부러워하리. ‘부워혀리’는 조금은 색다른 모습임. ‘부럽다’가 현대 경상도 방언에 서는 ‘뽀다’로 나타남. 그렇다면, ‘뽀-어’는 ‘뽀워’(뽀불규칙활용)를 거쳐 ‘부워(르탈락)’가 될 수 있음.

동풍이 희동<sup>46)</sup> 흥안이 북비홀 제  
 하로밤 조흔 비의 삼जू가 나단 말가  
 질숫회<sup>47)</sup> 데쳐내여 아춤 뇨기 흥온 후의  
 낙대를 드러메고 죠되로 내려가니  
 산용은 화병이오 슈식은 명경이라  
 정 : 흥 옥녀봉이 쫓곳고<sup>48)</sup> 물님<sup>49)</sup>  
 천고의 혼즈 셔 : 놀 위<sup>50)</sup> 고탓는고<sup>50)</sup>  
 흘연이 뉘흔 바회 하늘을 괴와시니  
 암 : 흥 큰 괴상이 땡부즈를 뵈읍는 닷<sup>51)</sup>  
 인물흥회<sup>52)</sup> 흥여 내 몸을 슬퍼보니  
 강산의 유조타미 헛말잇듯 실말잇듯<sup>52)</sup>  
 파심의 쫓는 고기 무어슬 즐기노라<sup>53)</sup>  
 우연이 팔즈 죠하 즈스씩 일콧인다<sup>54)</sup>  
 중천의 쏜 쇼로개 석은 쥐 산병아라<sup>55)</sup>  
 일싱경영이 이러<sup>56)</sup> 쏜 흥것마는  
 엇지타 너회갓치 그되도록 천홀시고  
 어와 너여이고 니 아니면 그리실가<sup>57)</sup>  
 이 니를 저브리면 나도 너만 너도 나만  
 심님의 님히 꿩고<sup>58)</sup> 쫓소리 우놀 적의<sup>59)</sup>

46) '희동'은 이상함.

47) 질그릇 술.

48) 쫓곳하고.

49) '님'은 '립(立)'?

50) '고다'는 '괴다'와 같은 어휘. 떠받치다.

51) 맹부자를 뵈읍는 듯.

52) '有造'. '강산이 유조하다 함이 헛말일 듯 진담일 듯'

53) 즐기노라고.

54) '일콧다'는 '稱하다'. '일콧는다'는 애매함.

55) 적은 쥐? 산병아리?

56) '이럴'에서 '르' 탈락한 듯. 정상적인 것은 아님. 문맥상 '이러듯'이 되어야 할 듯.

57) '니'는 '理'인 듯, '그리실가'는 '그릴까'로 여겨짐.

갈건포의로 암상의 혼즈 셔니  
녹나장 들닌 곳의 상황을 섯거 부니  
산인의 부귀를 뉘라셔 식을손고<sup>60)</sup>  
면만흔 저 황쵸여 안즐 디를 아웃거니<sup>61)</sup>  
인간의 무지흔 자 너만도 못홀시고  
네 쇼티 들어흐니<sup>62)</sup> 도심이 유연흐다  
셔풍이 건듯 부러 목엽이 날니거다<sup>63)</sup>  
동창의 들이 붉고 죽간의 셔리 올 제  
잔 잡고 들 디혀여 청흥을 부쳐시니<sup>64)</sup>  
슈정궁 뉴리전이 이예서 쵸홀쇼냐 <sup>65)</sup>  
이 들빋 거두어 장부의 비최고져<sup>66)</sup>  
진토지예를 썰치기 곳<sup>67)</sup> 다 썰치면  
본체가 광명흐면 나도 너만홀 거이오<sup>68)</sup>  
적설이 만산흐고 한귀 뵈인홀 제  
창 널고 브라보니 옥산경슈의  
연흐고 조흔 괴상 신기도 신괴홀샤  
빅옥경 진면목이 과연 아니 그러홀가  
빅원산 농환옹이 화로를 아너시니<sup>69)</sup>  
각고흔 참 공부를 어이흐면 쓰를손고

---

58) 잎이 피고.

59) 울고 노닐 적에

60) 누가 시샘하겠는가

61) ‘아웃다’는 문맥상으로는 ‘알거니’.

62) 들으니. ‘-어 흐니’는 ‘-으니’로 번역.

63) 날리는구나.

64) 의탁하니.

65) 이보다 좋을소냐.

66) 비추고 싶어라.

67) ‘곳’은 보조사. ‘하기만 하면’의 ‘만’과 유사.

68) 짓이고.

69) 안고 있으니.

미창의 주역 넓어 물니를 살펴보니  
 히 지자 들 도드며 치위 가면 더위 오니  
 뉘라셔 이 주장을 만 : 고의 흐단 말고  
 관물도 죠커니와 므옴이나 슬퍼보소  
 움죽이락 고요흐락<sup>70)</sup> 단예도 흐도홀샤<sup>71)</sup>  
 괴미의<sup>72)</sup> 상심흐여<sup>73)</sup> 선악을 구별흐며  
 형체를 바로 세워 만스의 근본삼아  
 동정운위에 이 므옴 주장흐면  
 이거시 사나희며 이거시 선비런가  
 깃히 숨어 이셔 이 도리를 안니흐면  
 산뎡야롱으로<sup>74)</sup> 호발이나 다름소나  
 성현의 지은 경서 조상의<sup>75)</sup> 세운 가법  
 넓고 :: 쏘 흥흐며 흥코 :: 쏘 넓으면  
 인간 어너 일이 이예셔 죠홀소나  
 즈너데즐노<sup>76)</sup> 이 일을 권흐여셔  
 산전슈애<sup>77)</sup>에 세월을 한송흐니  
 나도 이를 즐겨 이 밧기 일이 업셔  
 낮이면 쳐즈 보고 밤이면 꿈을 슬퍼  
 동 : 축 : 흐여 간단홀가 근심흐니  
 이 일의 골몰흐니 외물을 절노 닛내<sup>78)</sup>

70) ‘-락’은 반복. 오르락내리락.

71) ‘흐도 홀샤’는 ‘하도 할샤(=많기도 많구나)’가 맞는데, 16세기 이후 ‘·’가 소멸하면서 혼란스러워진 것.

72) 機微

73) 詳審

74) 삼뎡야롱과. 山岷野農

75) ‘의’는 주격의 ‘이’로 번역할 것. ‘나의 살던 고향’과 같은 것.

76) 子女弟侄

77) 山前水涯

78) 잇네. 잇어 버리네

동모야 웃지 마라 내 일 제금 네 일 제금<sup>79)</sup>  
조예<sup>80)</sup>의 불합하기 네부터 그러하니  
모르고 웃는 일이 믿음의 추연하여  
효제충신을 본는 족 : 스설하니  
남고<sup>81)</sup> 감동하여 인의를 힘쓰고야<sup>82)</sup>  
산중의 슈믄 경영 이 밧기 쏘 잇는가  
직 너머 니풍헌<sup>83)</sup>과 너로 건너 김약정<sup>84)</sup>이  
나물 적 흐린 술노 청커든 즉시 가서  
흔 잔 권코 두 잔 먹어 취흔 후의 니른 말이  
성명이 직상하여 티평을 여르시니  
우리 빅성들이 흥낙을 아니할가  
강구의 노래소리 너와 함기<sup>85)</sup> 화답하니  
당우 적 조흔 괴상 이 아니 그러흔가  
놓흔 뉘 깃흔 물 어초의 흥을 부쳐  
성세한민을 일싱을 즈기하니  
아마도 무스한인<sup>86)</sup>은 나췌인가<sup>87)</sup> 흐노라

79) '제금'은 '조금'의 뜻으로 보임.

80) 필사본에 '착병(鑿柄)'으로 부기되어 있음.

81) '남고'는 오독(誤讀)인 듯.

82) '-고야'는 '-는구나'의 뜻이 있음.

83) 李風憲. 풍헌(風憲)은 조선 시대 향소직(鄉所職)의 하나. 면(面)이나 이(里)의 일을 맡아 봄

84) 金約正. 약정(約正)은 조선 시대 향약(鄉約) 조직의 임원. 칭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 풍속과 기강, 상부상조(相扶相助) 등에 관한 일을 맡고, 수령이 향약을 실시할 때는 보조 실무의 구실을 하기도 함.

85) 중세국어의 '흔뻘'이 '함기'로 나타남. '·'의 소멸. 18세기 이후의 표기법으로 보임.

86) 無事閑人

87) '췌'는 '췌'의 오독(誤讀)으로 보임.

#### 4. <매산별곡>의 작품 검토

<매산별곡>은 조선후기의 사대부 가사에 해당한다. 표기 방식은 국문으로 3단 2구의 편언대우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사 길이는 2음보 1구로 236구의 중형가사이다. <매산별곡>은 3·4조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전통적인 가사 형식을 지키고 있는 정격가사이다.

작자는 과재(過齋) 김정묵(金正默, 1739~1799)으로 기호학과 노론 낙론계 학자이다. 창작 시기는 그가 충청도 회인군 매산리(현재 충북 보은군 회남면 소재)에 살았던 정조 2년(1778)부터 정조 7년(1783) 사이에 지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략 1780년 정도가 되겠다.

<매산별곡>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사용된 표기 체계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예로써 28구의 ‘도라혀니’는 중세국어의 ‘도르혀니’가 16세기 이후 ‘·’가 소멸하면서 ‘도라~’로 적힌 것이다. 37구의 ‘가식덤풀 췌쌔희예’라는 어구에서 ‘가식’(가시)·‘췌’(띠)·‘쌔희’(뿌리) 등은 모두 그 시기에 쓰인 어휘 표기들이다. 드물게는 근대 국어에서 쓰인 표기법도 보인다. 72구에 ‘암반으로 도라오내’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도라오내’는 19세기 말기 이후에나 보이는 표기이고, 이전에는 ‘도라오넛’ 정도로 가 될 것이다. 이러한 후대 표기는 <매산별곡>에 대한 필사 과정에서 근대 표기가 일부 들어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매산별곡>의 작품 구성은 ‘서사’-‘본사’-‘결사’로 이뤄지고 있고, 내용 상으로는 ‘기(起)·승(承)·전(轉)·결(結)’의 4단 구성 양식을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사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 길이가 늘어나면서 ‘본사’는 ‘본사1’·‘본사2’·‘본사3’ 등으로 나뉘지면서 내용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사 작품의 ‘서사’에 대해 살펴보자. 서사에서는 대개 가요명이나 창작 동기가 제시된다. <매산별곡>의 서사는 제1~6구이고 ‘엇진지 내 성정 산슈의 벽이 이러 빅스룰 다 저치고 스방의 오유흐니 명산대천의 족적



이 거의노다'가 그것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화자는 천석고황(泉石膏肱)처럼 자연을 좋아하여 명산대천을 안 다닌 곳이 없다는 말로 가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곳이 바로 서사(序辭)이고 내용상으로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곳 서사에서는 <매산별곡>이 강호가사로서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귀의하는 선비의 유유자적한 삶을 형상화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대개 강호가사의 서사에서는 그들이 강호에 묻혀 살게 된 까닭을 밝혀 스스로가 원래부터 산촌에 묻혀 사는 일반인들과는 다름을 나타내 보인다.<sup>88)</sup>

'본사'는 제7~216구까지인데, 내용 구조로 보아 '본사1(7~54구)·'본사2(55~170구)·'본사3(171~216구)'으로 나뉜다. 내용상으로 '기승전결'의 4단 구성에서 '본사1'과 '본사2'가 '승' 단락에, '본사3'이 '전' 단락에 해당한다. '본사1'에서는 독서로 소일하며 잠심(潛心)하다가 자연에 도의 본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찾으러 나선다는 대목이다. 예로부터 성현들이 자연을 통하여 심성을 기르고 천기를 즐겼다는 것을 화자가 인식하는 부분이다.

'본사2'에서는 자연에 도의 본체가 담겨 있다는 '본사1'의 내적 자각을 증거하기 위해 매산(梅山)이라는 자연 공간의 경물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매산의 자연 경물이 제시되지만 단순한 열거가 아니다. '관물(觀物)'을 통해 자연물에 내재되어 있는 도의 본체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사물이 태일(太一)에 근본을 두는 바, 가고오고 날고뛰는 것이 정미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89)</sup> 그는 인성과 물성은 같으며 물성에도 도가 있고,性は理에 근본하고 있고 理는 無爲하다고 보았다.<sup>90)</sup> 이것은 '본사2'의 "중천의 썸 소로개 석은 쥐 산병아라/ 일싱경영이 이러 썸 흐것마는 / 엇지타 너희갓치 그딴도록 천홀시고/어와 너여이고

88) 정재호,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4, 255면.

89) 『過齋遺稿』卷1, <次首尾吟>제5수. '過翁非是愛吟詩, 詩是過翁觀物時, 萬億百千根太一, 往來飛躍出精微.'

90) 위의 책, <次首尾吟>제7수. '過翁非是愛吟詩, 人物本性洞辨時. 人亦物哉物有道, 性本理耳理無爲. 須看聖賢之言隱, 却以鳶魚也躍飛. 性若不同天不一, 過翁非是愛吟詩.'

니 아니면 그리실가/ 이 니를 저버리면 나도 너만 너도 나만”이라는 구절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작자는 소리개나 쥐, 그리고 산병아리와 같은 짐승들의 날고 기는 것을 관찰하여 그것에 인간과 같은‘니(理)’가 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면만한 저 황조여 안줄 덕를 아웃거니/ 인간의 무지흔 자 너만도 못홀시고/ 네 쇼티 들어흐니 도심이 유연흐다”라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피꼬리가 무지한 인간보다 수승하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것은 인성과 물성이 같고 사물에도 도가 있다는 낙론계의 관점이기도 하다. 그것을 명시하기도 하였다.<sup>91)</sup> 이런 과정을 거쳐 작중 화자는 마침내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 道心을 확인하기도 하고 달과 산을 통해 物理를 깨닫기도 한다.

‘본사3’에서는‘마음’을 살피는 부분이다.‘기승전결’의 ‘전’에 해당한다. 이전 단락인 ‘본사2’가 매산의 자연 경물에 대한‘관물(觀物)’을 통해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만물의 본체를 인식하였다면, ‘본사3’은 내적 전환이 이뤄지는 곳인데 그 핵심은‘마음’에 있다.‘본사3’이‘관물도 조커니와 ㅁ음이 나 슬퍼보소’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마음으로 기미(機微)를 살펴서 선악을 구별하고 형체(形體)를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고, 움직이고 정지하는 운행과 행위에 대해 주체화하고 있다. 그래야 사나이이고 선비이며 그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며 한낱 터럭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중 화자는 산중에서 마음을 기르고 다스리며 인의에 실천하는 것을 법으로 삼는 바, 이르자면‘존심양성(存心養性)’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결사’는 제217~ 236구까지이고, 종결사는 마지막의 ‘아마도 무스한인은 나췌인가 흐노라’이다. 사대부 작품의 강호가사나 유배가사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며 소망을 피력하고 기약하는 곳이 결사 부분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전 단계에서 시적 자아의 자연 흥취, 이념적 정서, 또는

91) 같은 책, <次首尾吟>제8수. ‘過翁非是愛吟詩, 詩是本然論性時. 幽在鬼神明在樂, 大於天地小於眉. 若云物內分同異, 應亦心中有變移. 二字之謂晦父辨, 過翁非是愛吟詩. 子論天命之謂性曰, 天所命底是性, 人物同. 也須看之謂二字, 便得.’

연군 의식이 충돌하면서 갈등을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산별곡>에서는 굳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없다. 작품에서 시적 자아는 애초에 현실을 벗어나 강호를 벗삼아 자연을 탐색하며 그것에 내재된 본체에 관심을 기울였지, 다른 사대부가사들처럼 출처와 같은 현실적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종결사에서 태평성대를 노래하며 강호한정의 무사(無事)한 삶을 기약하고 있다. 이것은 가사의 갈등 표출 양상이 『내함구조(內含構造)』를 이루고 있는 바, 이념적 정서를 이미 초월한 가운데 자연 흥취 속에서 이미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였기 때문인지 모른다.<sup>92)</sup>

이상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산별곡>은 매산(梅山)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작자의 삶과 내면 의식을 읊고 있는 강호가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자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도의 본체가 담겨 있는 자연이다. 작자인 김정목은 예학과 도학에 밝았던 18세기 후기의 유학자이다. 주지하다시피, 18세기에 이르러 성리학의 이해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心性 문제를 두고 노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 우리는 이를 호락논쟁(湖洛論爭)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人性과 物性の 同異에 관한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心體가 선한가 아니면 선과 악을 겸하였는가를 두고 벌인 논쟁이었다.<sup>93)</sup> 김정목은 인성과 물성이 동일하다고 보며 理의 보편성을 강조한 洛論의 관점을 계승한 학자였다.

<매산별곡>은 매산이라는 자연 공간에서 경물을 관찰하고 그것에 담긴 도의 본체를 구현하고 있다. 작품에서 자연 경물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그것에는 理의 보편성이 내재되어 있고 道心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작자의 심성에 관한 관건이고 배후에는 낙론이 있다. 다시 말해 <매산별곡>은 단순한 강호가사가 아니라, 작품 이면에 심성에 관한 그의 도학적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와 같은 심성에 관한 견해는 그의 한시 작품인 <首尾吟>119수에서도 그대로 형상화되

92) 이승남, 『사대부가사의 갈등표출 연구』, 역락, 2003, 117~119면.

93)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383면.

고 있다.

김정묵의 <매산별곡>은 16세기 이래로 전승된 강호가사의 발전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호가사는 처음부터 시적 자아가 자연을 탐색하며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모색해왔다. 그런데 18세기 후기의 <매산별곡>에 이르러서는 자연을 통해 도의 본체를 탐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에서 심성 문제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심성 문제는 18세기 성리학계를 주도하던 중심 주제였지만 그것이 단지 도학적 논쟁으로 머물지 않고 <매산별곡>이라는 가사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강호가사의 처지에서는 18세기 후기에 이르러 김정묵이 <매산별곡>이라는 가사를 통해 심성이라는 성리학계의 당대 담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수용하여 형상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강호가사는 처음에 강호한정과 안빈낙도의 세계를 읊으며 도의 실체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매산별곡>에 이르러서는 자연에서 심성을 탐색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낙론계 유학자인 과재(過齋) 김정묵(金正默, 1739~1799)의 <매산별곡(梅山別曲)>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과재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후손으로 조선후기 기호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도학자였다. 18세기 초기에 호락논쟁(湖洛論爭)이 있었는데, 그는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심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며 학자로 일생을 마쳤다. 그는 노론 낙론계 학자로서 도통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당 한원진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비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문은 얼마 남기지 않았다.

그의 문집은 『과재유고(過齋遺稿)』인데 시는 143수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서 <차수미음(次首尾吟)>이 119수이다. <차수미음(次首尾吟)>은 송나라邵康節(1011~1077)의 <首尾吟>을 본떠 지은 것으로 후대에 首尾吟體라는 양식이 되었다. <차수미음(次首尾吟)>은 본래 소강절에 근원하고 있지만 그가 창작하게 된 배경에는 우암 송시열의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과제의 <차수미음(次首尾吟)>은 우암의 그것처럼 도학이나 심성과 같은 유학적 물음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것들은 호락논쟁의 주제로 떠올랐던 심성론과 관련된 체재들인데, 그의 <매산별곡>에도 깊게 투영되고 있다.

어려서 총명했던 과제는 『삼국지』를 읽고 문장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번에 나온 <매산별곡>도 『삼국지연의』의 이면에 적혀 있었다. <매산별곡>은 조선후기 사대부가사의 하나인 강호가사이다. 가사 길이가 2음보 1구의 236구로 된 중형가사이고 전통적인 가사 형식을 따르는 정격가사에 해당한다. 작품 구성은 대부분의 강호가사가 그렇듯이, ‘서사’-‘본사’-‘결사’로 이뤄지고 있다. 창작시기는 그가 충청도 회인군 매산리(현재 충북 보은군 회남면)에 살았던 1780년 전후로 짐작된다.

<매산별곡>은 매산(梅山)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작자의 의식과 정신세계를 읊고 있는 강호가사이다. 그런데 <매산별곡>은 단순한 강호가사가 아니라, 심성과 관련된 노론 낙론계의 도학적 관점이 작품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過齋遺稿』

『論語』

박재연, 「조선각본 <新刊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에 대하여」, 『중국어문학지』27집, 2008, 171~211면.

윤사순, 「기호 유학의 형성과 전개」, 『기호학과의 철학사상』, 예문서원, 1995, 16-18면.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383면.

이승남, 『사대부가사의 갈등표출 연구』, 역락, 2003, 117~119면.

정 민, 「尤庵先生 <首尾吟>134수 管窺」, 『한국사상과 문화』42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35-62면.

정재호,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4, 255면.

투고일 : 2011년 12월 29일, 심사 : 2012년 1월 16일~ 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4일

<Abstract>

A regarding on a newly discovered work,  
<Maesan-byulgok(梅山別曲)> of Gwajae(過齋)  
Kim Jeong-Muk(金正默)

Gu, saw-hae

This paper focused on Jeong-Muk Kim's, who was a Confucian scholar in the late Joseon Dynasty, work <Maesan-byulgok>. <Maesan-byulgok>, which recited about a life in nature, is a new lyrics that has not been known until now. Therefore, the original context of <Maesan-byulgok> was introduced and were examined in this paper.

The author Jeong-Muk Kim was a descendent of Jang-Saeng Kim who succeeded the scholastic mantle of Yul-Gok Lee in the Joseon Dynasty and he was a Confucian scholar who devoted himself to his studies during his entire life in nature. He was a scholar in the family Nakron among the school Noron, and he strived to protect the authenticity of Taoism while studying issues related to people's mind.

In his recently discovered work <Maesan-byulgok>, written while looking at the natural scenery of a village named Maesan where he lived, he realized that eternal essence was contained in the hidden side of the scenery and said people to bring up their minds. The narrator in the work is pledging himself to adapt to nature in the reign of peace and live a peaceful life while enjoying Tao. The nature appearing in <Maesan-byulgok> is not simple nature but an idea that contains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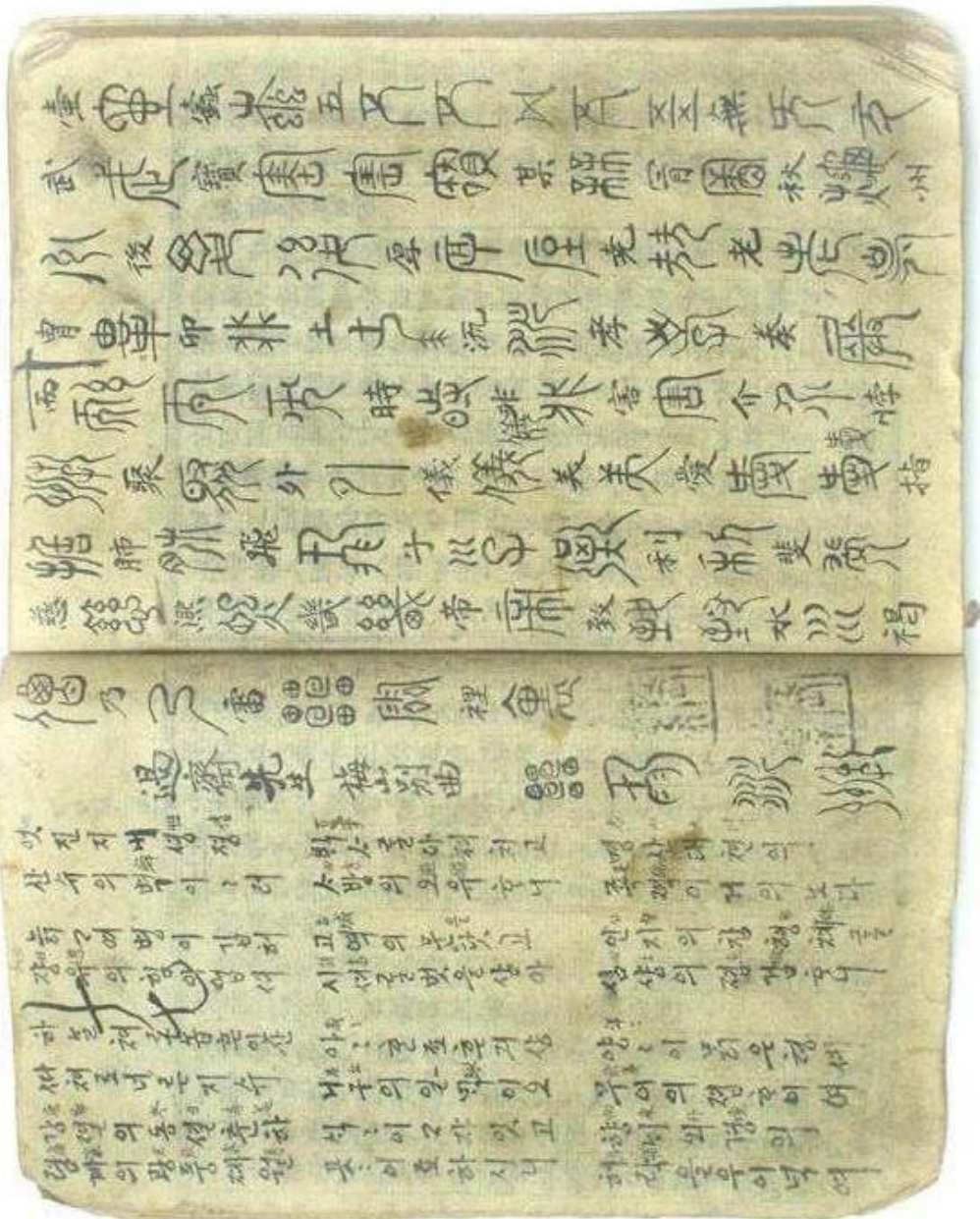
truth of Tao in its hidden side. This lyrics work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work was combined with the issue of minds pursued by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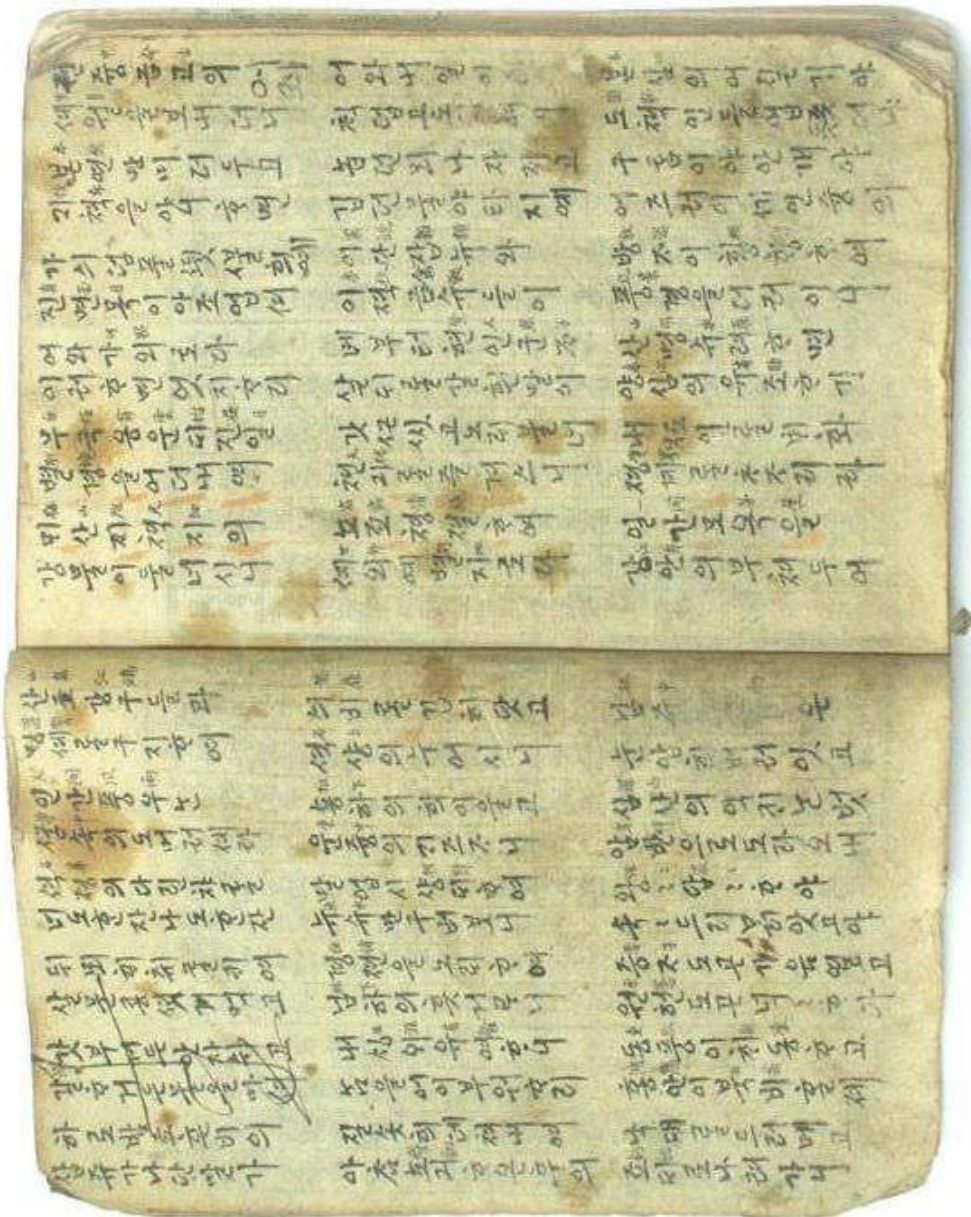
Key words : Gwajae(過齋), Kim jeong-muk(金正默), <Maesan-byulgok(梅山別曲)> Gwajaeyugo(過齋遺稿), one's mind, Horak's debate, Sumium(首尾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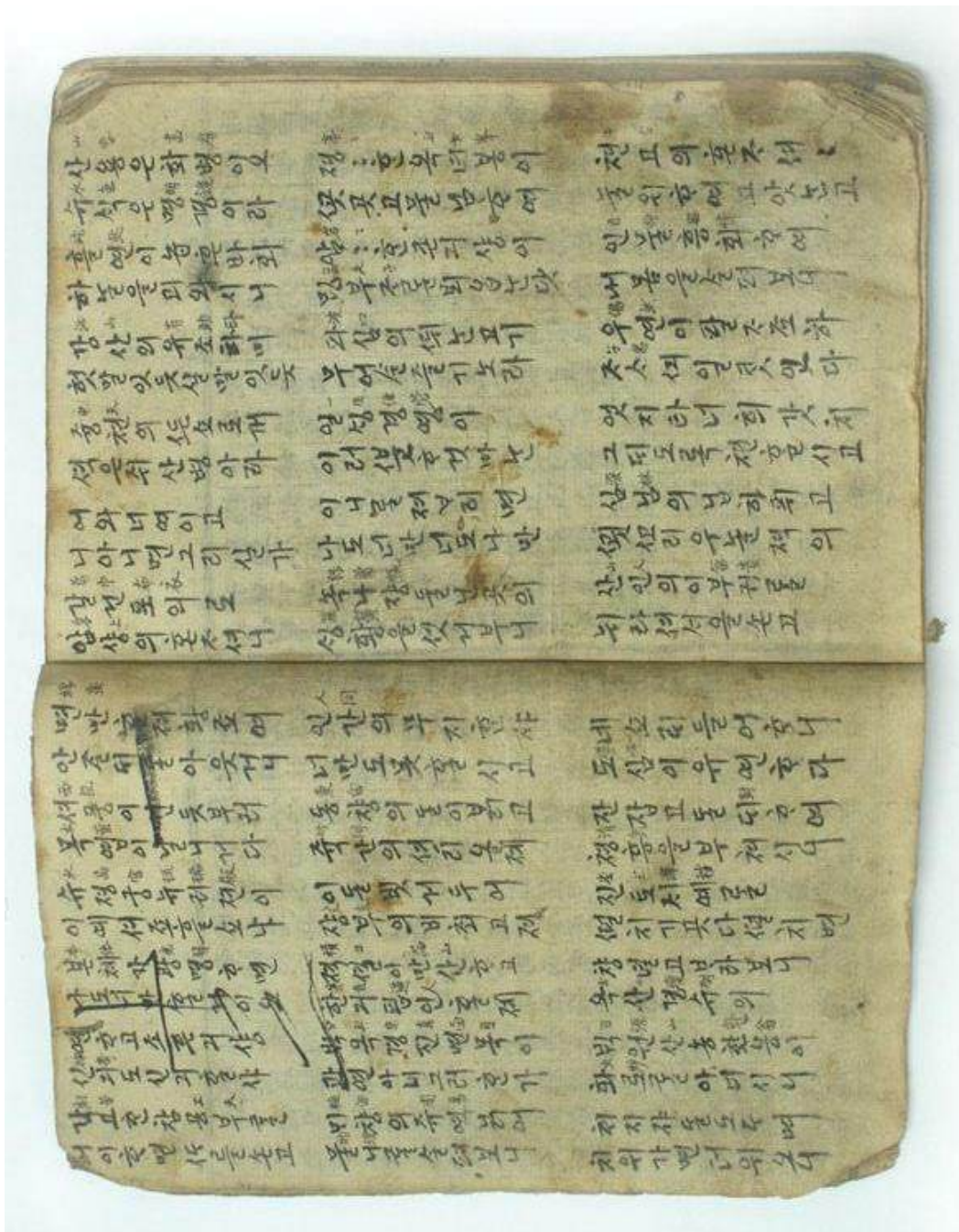




■ <매산별곡> 부분 影印 : 조선각본, 『新刊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







취라셔이쥬장을	만물도호니외	물죽이잡무호호
반의의수안말고	모음이나스려보소	단애음으로호호
선려의의상상호여	형혜를파로세워	동정근위세
선악을구별호여	반사의근본삼아	이모음수상호연
이거사나희여	김희호여이여	산빙야름으로
이거선비런가	이로라루안나호여	호발이나다름소나
평평의지은평호여	남고호호호호호	인간어니일이
조상의새우가법	평고호호호호호	이예선호호호호
조버예를노	산선수애세	나도이호호호호
이일을권호호여	예월을환호호호	이빛의일이어
나이면처호호호	동호호호호호	이일의물물호호
밤이면삼호호호	간단호호호호호	외불을절노호호
동호호호호호	조예의불호호호	모르포우호호호
내일제금네일제금	네부터리호호호	모음의주연호호
호제호호호호	밤도말호호호	산호의수호호호
보호호호호호	인의호호호호호	이빛호호호호호
죄너어너호호호	나물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	청호호호호호호	취호호호호호호
생호호호호호	우리호호호호호	강호호호호호호
하호호호호호	항호호호호호호	너와호호호호호
당호호호호호	동호호호호호호	생호호호호호호
이호호호호호	어호호호호호호	일호호호호호호
아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		

